

##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스몰 웨딩(small wedding)의 다듬은 말: 작은 결혼식
- 어메니티(amenity)의 다듬은 말: 편의 물품
- 로드뷰(road view)의 다듬은 말: 거리 보기
- 키즈존(kids zone)의 다듬은 말: 어린이 공간
- 노키즈존(No kids zone)의 다듬은 말: 어린이 제한 (공간)
- 비하인드 컷(behind cut)의 다듬은 말: 미공개 장면/미공개 영상
- 프레스 콜(press call)의 다듬은 말: 언론 시연회
- 어부징(abusing)의 다듬은 말: 조희 수 조작
-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의 다듬은 말: 밥상모임
- 그룹 엑서사이즈(GX: Group exercise)의 다듬은 말: 그룹 운동

‘스몰 웨딩(small wedding)’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올리는 결혼식을 말한다. 이를 ‘작은 결혼식’으로 다듬었다. ‘어메니티(amenity)’는 숙박 시설의 투숙객 또는 항공기의 이용객을 위하여 비치해 놓은 각종 물품을 가리킨다. 이를 ‘편의 물품’으로 다듬었다. ‘로드뷰(road view)’는 길거리의 사진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3차원으로 보여 주는 지도 서비스이다. 이를 ‘거리 보기’로 다듬었다. ‘키즈존(kids zone)’은 백화점이나 식당 등 서비스 업계에서 부모와 함께 방문하는 어린이를 위해 준비한 공간을 가리킨다. 이를 ‘어린이 공간’으로 다듬었다. 반면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의 출입을 금지하는 매장을 말한다. 이를 ‘어린이 제한 (공간)’으로 다듬었다. ‘비하인드 컷(behind cut)’은 특정

한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최종 선정되어 공개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르는 말이다. 이를 ‘미공개 장면/미공개 영상’으로 다듬었다. ‘프레스 콜(press call)’은 언론에 알린다는 뜻으로 뮤지컬이나 연극 등에서 정식 공연 전에 취재진 앞에서 주요 장면을 보여 주며 공연을 소개하고 출연 배우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언론 시연회’로 다듬었다. ‘어뷰징(abusing)’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클릭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조회 수 조작’으로 다듬었다.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은 누리소통망(SNS) 서비스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밥상모임’으로 다듬었다. ‘그룹 엑서사이즈(GX: Group exercise)’는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그룹 운동’으로 다듬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최근 유행하는 작은 결혼식(←스몰 웨딩)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진행하는 결혼식이다.
- 과거에는 단순히 숙소의 개념이었던 호텔이 각종 비품과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편의 물품(←어메니티)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듬은 ‘쾌적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예) ○○시는 농촌의 쾌적함(←어메니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다.
-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가 보는 약속 장소를 확인할 때 휴대전화로 거리 보기(←로드뷰)를 먼저 확인한다.
- 육아를 분담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야구장 복도에 어린이 공간(←

키즈존)을 조성한 구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 어린이 동반 출입을 제한하는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업소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 얼마 전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촬영 현장 미공개 장면(←비하인드 컷)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언론 시연회(←프레스 콜)에 참석하는 기자들은 관객을 대신하여 궁금한 점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등의 조회 수 조작(←어뷰징)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밥상모임(←소셜 다이닝)이 확산되고 있다.
- 운동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혼자서는 동기 부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운 생활 체육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그룹 운동(←그룹 엑서사이즈)에 참여하면 처음의 운동 다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 2. 2016년 제4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중국의 수어, 점자 및 소수 민족 어문 정책
- **발표자:** 엄남(중국민족어문번역국)
-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민족어문번역국 엄남 번역사가 ‘중국의 수어, 점자 및 소수 민족 어문 정책’을 주제로 중국의 특수 언어 정책과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중국의 수어 연구와 보급 사업은 중국맹인농아인협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1988년 설립된 중국장애인연합회가 전담하고 있다.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는 기존 수어 연구를 기반으로 음성 언어와 수화 언어의 사용을 결합하여 중국 수어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공공 기관과 학교 교육에서 중국 수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수어 통역사를 육성하였다. 컴퓨터 분야의 전문 용어 수어 1,200여 개를 표준화하였으며, 미술, 자연 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의 수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2003년 7월부터는 중국장애인연합회와 중국농인협회가 공동으로 《중국 수어 일상 회화》를 편찬하여 청각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수어 일상용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수어 동영상 자료집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수어 연구 및 보급 사업으로 수어를 배우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현재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과 성급 텔레비전 방송국, 일부 지방 방송국에서 수어 전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점자에 대한 연구와 보급 사업 역시 중국장애인연합회가 전담하고 있다. 점자의 표준화 이외에도 점자의 사이버

강의 플랫폼 구축, 점자 번역, 점자 편집, 점자 낭독 등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약 80종 이상이며, 이들 언어는 언어학적으로 5개 어계, 10개 어족, 16개 어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내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문자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중국 내에는 한자를 포함하여 모두 39종의 문자가 사용(또는 시범 사용) 중이다. 중국 소수 민족의 62%에 해당하는 34개 민족은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한글과 같이 민족 자체적으로 창안한 문자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조선족, 몽골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티베트족, 러시아족 등의 6개이다. 반면, 나머지 21개 민족은 민족 고유의 문자가 없어 한자 등 다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발표가 끝난 후 중국의 특수 언어 정책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특수 언어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소수 민족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수 언어 정책, 소수 민족 어문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역대’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7차 심의 확정안(2016. 9. 2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8차 심의 확정안(2016. 9. 3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9차 심의 확정안(2016. 10. 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0차 심의 확정안(2016. 10. 14.)
- 제129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6. 10. 1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1차 심의 확정안(2016. 10. 28.)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2차 심의 확정안(2016. 11. 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3차 심의 확정안(2016. 11. 1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4차 심의 확정안(2016. 11. 18.)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5차 심의 확정안(2016. 11. 2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6차 심의 확정안(2016. 12. 2.)
- 제130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6. 12. 6.)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7차 심의 확정안(2016. 12. 16.)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8차 심의 확정안(2016. 12. 2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9차 심의 확정안(2016. 12. 30.)

#### 4. 2016년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보완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 1/4분기 회의 개최
  - 일시: 2016. 3. 11. 금요일
  - 안건: 뜻풀이 보완 등 1,432건 다룸. ‘랍스터, 디엠지’ 등 주요 수정 사항 30개 공개.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 2/4분기 회의 개최
  - 일시: 2016. 7. 6. 수요일
  - 안건: 뜻풀이 보완 등 1,352건 다룸. ‘한국 수어’ 등 주요 수정 사항 30개 공개.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 3/4분기 회의 개최
  - 일시: 2016. 9. 27. 화요일
  - 안건: 뜻풀이 보완 등 2,108건 다룸. ‘건곤감리’ 등 주요 수정 사항 30개 공개.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 4/4분기 회의 개최
  - 일시: 2016. 12. 23. 금요일
  - 안건: 뜻풀이 보완 등 551건 다룸.



## 5.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참여형 웹사전 《우리말샘》 등 사전 3종 개통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살아 움직이는 국어를 제 모습대로 파악하고 기록하여 한국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말샘》(개방형 국어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10개 언어) 등 3종 12개 사전을 10월 5일(수)에 개통하였다.

###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 일시/장소: 2016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
  - 주요 내용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소개 및 시연
    - 《우리말샘》 첫 사용자 어휘 등록
  - 사전별 웹 주소
    - 우리말샘 <http://opendict.korean.go.kr>
    - 한국어기초사전 <http://kr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예: 한-영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eng>)
- ※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나 포털의 검색을 통해서 ‘바로 가기’ 가능

### 5.1. 사용자 참여로 날마다 진화하는 《우리말샘》

《우리말샘》은 온 국민의 참여로 한국어 지식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사회·언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진화하는 사전’이다. 개통 시점에는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50만 어휘에 새로 구축한 일상어·지역어·전문

용어 등 100만 어휘가 수록되며, 뜻풀이·예문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어휘의 역사 정보, 규범 정보, 다중 매체 자료(삽화, 사진, 동영상 등), 어휘 지도 등 다양한 한국어 정보와 지식, 문화를 담는다.

이 사전은 국민 누구나 정보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이다. 사용자가 첨삭한 정보는 표현·표기 감수를 거쳐 ‘참여자 제안 정보’로 표시되고, 이 정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 절차를 거치면 ‘전문가 감수 정보’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의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말샘》은 일반 참여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사전’이다.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검토 되어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모든 어휘의 편집 이력이 상세히 공개되며, 토론 게시판에서는 개별 어휘에 대한 집단 토론도 할 수 있다.

사용에 편리한 여러 기능도 구현되었다. 사전 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검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포함 검색, 자모 검색, 초성 검색, 정보별 검색 등)을 갖추었고, 관련 어휘들이 그물망처럼 표시되어 어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휘 지도 기능도 있다. 개인별 단어장이나 작은 창 사전 기능도 매우 유용하다.

## 5.2. 한류 확산의 새로운 동력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에 기본이 되는 5만 어휘가 실린 한국어 학습 사전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쉬운 뜻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공하고, 어휘별로 다중 매체 자료(삽화, 사진, 동영상 등)와 관련어 정보를 연결하여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은 한국어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한류의 동력이 될 10개 언어로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하면서 번역하였고, 외국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여건에서도 편리하게 외국어별 화면 자판 기능, 글자 중심의 화면을 구현하였다.

### 5.3.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의 마중물이 되도록 저작권 공개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정보는 누구나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민간에서 사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개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사전 자료 개발 지원(오픈 에이피아이 Open API)을 할 계획이다.

### 5.4. 살아 있는 한국 언어문화를 집대성하고 발전시킬 《우리말샘》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말의 쓰임과 현상을 담아낼 《우리말샘》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다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 3.0에 따라 누구나 사전 정보를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소통과 문화 축적의 기제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말과 우리 문화의 특성까지 반영한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 한류와 더불어 약진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를 뒷받침해,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대와 한국어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우리말샘》 개통 관련 기자 간담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9월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10월 5일에 개통하는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소개하고 시연하였다.

- 일시/장소: 2016. 9. 28.(수) 10:30~13:00 / 정부 서울청사 별관 203호
- 주요 내용
  - 《우리말샘》 등 3종 12개 사전 소개

#### · 《우리말샘》

- ① 일상어, 지역어, 전문 용어 등 실생활어 100만 항목 수록
- ② 개방형 편찬 시스템과 전문 감수제를 도입하여, 일반 사용자와 사전 전문가의 협업으로 실생활 언어를 지속적으로 담고 다듬는 진화하는 사전

####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 ①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본 어휘 5만 항목 수록한 ‘한국어기초사전’
- ② 《한국어기초사전》을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은 10개 언어로 번역한 ‘한-외 학습사전’

#### · (저작물 자유 이용) 3종 12개 사전의 저작 내용을 자유 이용토록 하여 다양한 문화 상품 개발 도모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개통식’ 홍보

## 6.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웹 사전, 처음 태어나다

### 6.1. 세계인이 누리는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등 11개 사전 개통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의 뜻과 쓰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10개 언어)을 지난 10월 5일에 개통하였다.

이번에 개통한 11개의 사전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5만 어휘를 수록한 최초의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이자 이중 언어화 사전<sup>1)</sup>으로 한국어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미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6.2.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선생님,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5만여 어휘가 실린 한국어 학습사전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뜻풀이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공하고, 어휘별로 다중 매체 자료(삽화, 사진, 동영상 등)와 관련어 정보를 연결하여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을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은 10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로 번역한 이중 언어화 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하여 번역하였고, 외국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여건에서도

1) 이중 언어화 사전: '한국어 단어(올림말)-한국어 뜻풀이-번역 뜻풀이'를 제공하는 사전으로 기존의 단일어 사전이나 이중 언어 사전(한국어 단어-한국어 단어를 번역한 대응어)의 장점을 모두 갖는 사전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별 자판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글자 중심의 화면을 구현하였다.

[그림 1] 《한국어기초사전》 첫 화면



▶ 외국의 인터넷 사용 여건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와 주요 기능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어기초사전》에서 《한-외 학습사전》언어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

### 6.3. 사전 사용자의 언어와 한국어를 모두 이해하는 똑똑한 사전, 사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검색해 주는 친절한 사전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어휘와 학습 정보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사전 사용자의 모어로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또한 두 언어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사전에서는 한국어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고와서’, ‘-기 마련이다’, ‘-아서’, ‘더위를 먹다’ 등과 같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용언의 활용형, 문법·표

현, 관용구, 속담 등을 한국어와 사용자의 모어로 검색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수록된 어휘 가운데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 수준에 따라 알아야 할 어휘를 구분하여 별표(★)를 붙였으며, ‘소개하기’, ‘물건 사기’ 등의 주제 및 상황 범주에 따른 어휘와 같은 다양한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 《국립국어원 한국어-영어 학습사전》에서 ‘동료’와 ‘coworker’로 검색한 결과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interface for the word '동료'. The search bar contains '동료' and the search button is active. The results section shows two entries:

- 동료 (同僚)** 명사 Noun [동노 < >] \*\* [View All >](#)  
coworker; colleague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A person with whom one works at one's workplace.
- 동료애 (同僚愛)** 명사 Noun [동노애 < >] [View All >](#)  
comradeship  
동료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Love and admiration among colleagues.

On the right side, there are options for 'View Mode' (Korean + English, Korean, English), 'Lineup Conditions' (Alphabetic order, By Hits), and 'My Search History'.

▶ 한국어와 사전 사용자의 모어로 검색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interface for the word 'coworker'. The search bar contains 'coworker' and the search button is active. The results section shows one entry:

- 동료 (同僚)** 명사 Noun [동노 < >] \*\* [View All >](#)  
coworker; colleague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A person with whom one works at one's workplace.

On the right side, there are options for 'View Mode' (Korean + English, Korean, English), 'Lineup Conditions' (Alphabetic order, By Hits), and 'My Search History'.

▶ 검색 결과 보기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 《국립국어원 한국어-영어 학습사전》에서 '막걸리' 사전 내용 보기



- ▶ 학습자에 필요한 어휘를 쉽게 뜻풀이하였으며, 사용자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정보와 다중 매체 정보를 실었다.

#### 6.4. 한류 확산의 새로운 동력 《한국어기초사전》, 《한-외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정보는 누구나 자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민간에서 사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며, 사전 자료 개발 지원(오픈 에이피아이 Open API)을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편찬된 한국어 학습용 사전은 한국어로만 기술된 단일어 사전이거나 한국어 어휘(올림말)만 외국어로 대역한 이중 언어 사전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편찬 형태가 종이 사전이어서 학습자가 원하는 어휘와 학습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사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을 편찬하였다.

현재 전 세계 약 22만 명의 재외 동포와 외국인이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엔 국립국어원에서 개정한 이 사전이 한국어 학습자와 이제 막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류 애호가들에게 한국어 공부의 문턱을 낮춰 주는 의미 있는 길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사전별 웹 주소]

- 한국어기초사전 <http://kr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rus>
- 국립국어원 한국어-몽골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mon>
- 국립국어원 한국어-베트남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vie>
- 국립국어원 한국어-스페인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spa>
- 국립국어원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ara>
- 국립국어원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eng>
- 국립국어원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ind>
- 국립국어원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jpn>
- 국립국어원 한국어-타이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tha>
-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fra>

※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 첫 화면에서 사전 종류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이나 포털의 검색을 통해서도 ‘바로 가기’가 가능함.

## 7. 국립국어원·에스비에스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개최

국립국어원과 에스비에스(SBS)가 11월 18일 오후 3시, SBS 방송센터(목동)에서 ‘존중과 배려의 방송 언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 7.1. 일곱 번째 국립국어원과 에스비에스의 공동 연구 결과물

국립국어원과 에스비에스는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며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방송 언어의 경어법’, ‘시청자와 함께 하는 방송 언어’, ‘방송 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방송 언어와 국어 교육’, ‘방송 언어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여섯 차례 공동 연구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 7.2. ‘존중’과 ‘배려’를 위한 방송 언어

최근 방송 언어에 대한 관심은 틀림과 바름을 가르는 ‘정확성’에서 ‘소통성’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방송 언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방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방송 언어에서 소통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 ‘존중’과 ‘배려’의 방송 언어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 발표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 방송 토론 프로그램, 언어 소외 계층 방송의 언어 사용과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을 다뤘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 사용에서는 올림픽에서의 성 차별과 관련된 언어 사용을 지적하며 중계방송의 언어 사용 원칙을 제시했다. 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에서는 방송 토론의 인신공격 발언 양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언어 소외 계층 방송의 언어 사용에서는

올해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으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수어와 수화 언어 방송에 대하여 개괄하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근 오락 프로그램에서 방송 자막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막의 역할이 확대된 것에 대해 살피며 자막 제작자의 역할 및 자막을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 나갔다.

### 7.3. 방송 실무자와 국어학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바른 방송 언어문화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 국립국어원과 에스비에스의 공동 연구는 학계와 언어 정책 기관 연구자뿐만 아니라 방송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여 방송 언어 문화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공동 연구에는 에스비에스 손범규 아나운서와 이현경 아나운서가 참여하여 방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앞으로도 방송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두 기관의 의미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발표회의 발표 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존중과 배려의 방송 언어(정희창, 성균관대)
- 스포츠 중계방송의 성 차별적 언어 사용 분석(손범규, 에스비에스)
- 시청자의 프로그램 해석에 있어 자막이 미치는 영향(이현경, 에스비에스)
- 언어 소외 계층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황용주, 국립국어원)
- 방송 토론의 인신공격 발언 양상과 개선 방안(박재현, 상명대)

## 8. 국립국어원, 청소년을 위한 ‘우리말 꿈터’ 개관

국립국어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말 체험 공간인 ‘우리말 꿈터’를 10월 17일(월) 개관하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재환 교육장,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춘혜 센터장 등 청소년 교육 관계자,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다.

약 260㎡ 넓이로 국립국어원 1층에 새로 조성한 ‘우리말 꿈터’는 학생들이 우리말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자신과 주변의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특히 중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좋은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말 꿈터’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전을 주제로 한 ‘도전! 사전 탐험대’에서는 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사전을 활용해 십자말풀이를 해 보고

자신만의 낱말 뜻풀이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우리말을 주제로 한 ‘출발! 우리말 여행’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을 알아맞혀 보고, 지역 방언으로 개사한 노래를 작은 노래방에서 불러 보며 각 지역 방언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안녕! 우리말’은 언어 예절을 주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높임말과 인사말 바르게 고쳐 보기’, ‘인터넷에 응원하는 댓글 달기’,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나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엽서에 전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도 우리말 지키미’는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보기’, ‘우리말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직접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에 문의하기’, ‘띄어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몸으로 뛰는 게임으로 익혀 보기’와 같은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 주제                    | 코너명   |
|-----------------------|---|
| [사전] 도전! 사전 탐험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과 함께 놀기</li> <li>· 십자말풀이</li> <li>· 나만의 뜻풀이</li> </ul>                                     |
| [다양한 우리말] 출발! 우리말 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혜가 반짝이는 속담</li> <li>· 지역 방언으로 노래하기(노래방)</li> </ul>  |
| [언어 예절] 안녕! 우리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예절 돌아보기</li> <li>· 마음을 담은 댓글 달기</li> <li>·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li> <li>· 내 마음 가득 전하기</li> </ul> |
| [소중한 우리말] 나도 우리말 지키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고 편한 우리말을 찾아서</li> <li>· 국립국어원에 물어보세요</li> <li>· 띄어쓰기 뛰어 보기(게임)</li> </ul>                  |

‘우리말 꿈터’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을 위해 언어 인성 프로그램(‘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는 국립국어원이 2015년에 개발한 언어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배려와 긍정의 소통 문화를 고민해 보게 하는 활동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강연과 문화 공연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말 꿈터’ 체험은 무료이며, 체험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자세한 안내와 참여 예약 방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국어·한국어 교육 > 우리말 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국어문화학교 하반기 독서, 화법, 작문 특별 과정 운영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하반기에는 국민의 독서 능력, 화법 능력, 작문 능력의 향상을 위해 특별 과정을 운영하였다. 총 252명이 특별 과정을 수강하였으며, 과정의 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국어문화학교 하반기 독서, 화법, 작문 특별 과정 운영

1. 독서 특별 과정: 11월 30일 ~ 12월 2일(3일), 57명 수강
  - 독서의 역사와 미래 등 10과목
2. 화법 특별 과정: 12월 7일 ~ 12월 9일(3일), 88명 수강
  - 화법의 이론과 실제 등 10과목
3. 작문 특별 과정: 12월 14일 ~ 12월 16일(3일), 107명 수강
  - 사회적 요구와 작문 능력 등 10과목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어문 규범의 보급과 우리말 표현력의 신장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10. 국립국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국립국어원은 21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가족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전 조사 시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문 인력의 현장 경험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국립국어원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과 레인보우 소식지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통·번역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례 평가의 문제를 출제할 때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이 우리 사회가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11. 인사이동

### 11.1. 승진

- 채영주: 6급(행정주사)(10월 21일)

### 11.2. 전보 발령

- 이진희(행정주사보):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운영과(11월 14일)
- 이민서(사무운영주사보): 교육연수과 → 문화체육관광부(12월 12일)
- 진영미(사무운영주사보): 국립국악원 → 교육연수과(12월 12일)
- 유은숙(행정주사보): 기획운영과 → 특수언어진흥과(12월 27일)

### 11.3. 전출

- 박성욱(행정주사보): 기획운영과 → 공정거래위원회(11월 14일)

### 11.4. 전환 근무 등

- 구지민(학예연구관): 주 25시간 시간 선택제 근무(2016년 12월 14일~  
2017년 2월 17일)
- 유은숙(행정주사보): 기획운영과 지원 근무(2016년 12월 27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11.5. 복직

- 정혜선(학예연구사): 육아 휴직 복직(12월 14일)